

개교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다!

지금의 대학이 만들어지기까지



▶우리 대학 전경

우리 대학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과 학생생활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인격을 완성하고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이념으로 삼아 설립됐다.

진리, 창조, 봉사 세 가지를 교육 이념으로 삼았다. 기독교 진리를 인격의 터전으로 삼는 교육,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 배운 바를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인격을 갖춘 축된 지도자 양성, 첨단 과학 발전에 부응하고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세계적인 인재 양성, 합리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지식을 연마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민주 시민 양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0년 5월 28일 기독교 재단 법인 학교법인 동서학원 설립을 시작으로 발전한 우리 대학은 1991년 11월 15일 부산 지역 최초의 4년제 공과대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1996년, 동서공과대학교에서 동서대학교로 학교명을 변경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00년대 들어서며 우리 대학은 ▲산업부 주관 '영남권 디지털디자인 거점대학(DIDIC)' 선정 ▲교육부 평가 '대학별 자체 교육 개혁 실천 분야' 2년 연속 우수 대학 선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교양 교육과 디자인 학문 평가 전국 최우수대학 선정 ▲대학종합평가 '발전 전략 및 비전' 분야 전국 1위 ▲부산·경남권 최초의 IPv6 기반 와이어로 기지국 개통 등의 성과를 이뤘다. 또 ▲모바일 캠퍼스 구축 ▲개교 10주년 기념 뉴릴레니엄관 완공 ▲Japan Center 개소 ▲u-Campus 구축 ▲민석 도서관 개관 등을 하며 현재 캠퍼스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또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인 임권택 감독의 이름을 붙인 대학을 설립하고, 임권택 영화연구소 개소 등을 통해 공연예술계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대에는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 선정 ▲2년 연속 '우수 청년드림대학' 선정 ▲대학 특성화 사업(CK 사업) 부산권 최다 선정 ▲공학교육혁신 센터 우

수 등급 ▲해외 취업 지원 사업 K-Move 스클 6개 과정 선정 ▲'질 가르치는 대학' ACE+ 사업 선정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주관 기관 선정 ▲국제 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운영 기관 선정 ▲부산광역시 주관 '청년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선정 ▲대학 일자리 센터 운영 기관 선정 ▲3년 연속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 사업' 컨소시엄 선정 등 다양한 운영 기업과 사업에 선정해 학생들의 질 좋은 대학 생활을 성과를 이뤘다. 또 ▲모바일 캠퍼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준공 ▲종합 운동장 준공 ▲스튜던트 플라자 준공 ▲센텀캠퍼스 준공 ▲임권택 영화 박물관 개소 ▲미래형 강의실 동서미디어아웃렛 개소 ▲민석 교양대학 오픈 등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질 높은 강의를 위한 학교 시설을 설립하기도 했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 준공 ▲센텀캠퍼스 준공 ▲스튜던트 플라자 준공 ▲센텀캠퍼스 준공 ▲임권택 영화 박물관 개소 ▲미래형 강의실 동서미디어아웃렛 개소 ▲민석 교양대학 오픈 등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질 높은 강의를 위한 학교 시설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런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우리 대학은 유일하게 미국, 중국, 일본에 해외 캠퍼스를 둔 큰 학교로 성장하게 됐다.

규모뿐만 아니라 여러 국제 사업 선정 및 우수 등급 획득, MOU 체결에 이어, 대학 평가 부문에서 교육부 대학 혁신지원

사업 성과 평과 최우수 A등급 획득 및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건축공학과, 방송영상학과 등 산업체관련 대학 평가 최우수학과 선정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음을 통해 우리 대학의 명성을 높였다.

아웃풋의 경우에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번도 멀리지 않고 부산·울산·경남권 취업률 1위를 자랑하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해외 취업률이 시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률 전국 2위를 자랑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올해 개교 30주년을 맞이했다. 현재 개교 30주년 기념 월례기 기부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월례기 기부 캠페인은 학교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After 동서가 Before 동서에게'를 슬로건으로 걸어 진행하고 있다. 첫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명해 기부하는 방식이며, 현재 제65호 기부자까지 지명됐다.

기부 캠페인 이외에도 개교 30주년 기념 여러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 중에 있으니 기대해 봄도 좋을 것 같다.

김규리 기자
0rlarbf1@gmail.com



▶LINC 10주년 행시장

우리 대학이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이하 LINC 3.0) 1차 결과에 선정됐다.

LINC 사업은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의 약자로, 대학은 지식과 기술 창출의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혁신 수요 충족에는 다소 부족하며,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혁신 전초기지로서 대학의 능동적 역할 강화를 시도하는 판단에 추진해졌다.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산학연협력 성장 모델 확산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래업 대비 인력 양성을 체계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가형 대학 형성, 산학협력 지속성 제고 기반 강화, 함께 성장하는 공유·협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겠다 밝혔다.

2004년부터 추진한 LINC 사업은 그간 대학 강점 분야 중심의 역량 집중으로 다양한 특화 모델 구축, 자립화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제고시켰고,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모델을 출시시켰다.

특히 산학 연계 교육이 보편화된 LINC+ 사업 참여 대학은 미참여 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을 증가세를 보여 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대학

의 인재 양성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고, 산업 지원 및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을 강화해 대학과 산업체의 상생발전을 지원하는 LINC 3.0을 추진하게 됐다. 이는 최종 선발된 대학에는 연간 40억 원이 지원되는 규모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다.

동남권에서는 기술혁신 선도형으로는 부산대, 수요 맞춤 성장형으로는 우리 대학을 포함해, ▲경남대 ▲동아대 ▲동의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가 1차에 최종 선정됐다.

우리 대학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LINC의 후속 사업인 LINC+에 선정됐었다. 사회 맞춤형 학과 활성화 사업과 통합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으로, 5년간 22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산학 기반, 산학 교육 및 신학 연계 분야 9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했다. 우리 대학 LINC+ 사업단은 영화, 영상, 디지털콘텐츠, IT 융합, 디자인을 4대 중점 분야로 국내 최고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썼다.

LINC 3.0은 기술혁신 선도형과 수요 맞춤 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세 경우로 나눠 대학을 선정했다. 여러 대학이 LINC 3.0에 선정되기 위해 평가 준비 및 공모를 했는데, 우리 대학이 선정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LINC 3.0을 통한 대학과 학생들의 성장이 기대된다.

김규리 기자
0rlarbf1@gmail.com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 선정!

인재 양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동서대 뉴릴레니엄관

우리 대학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공학교육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2018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 양성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후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공학교육 혁신센터는 2022년부터 매년 1,5억 원 6년간 정부로부터 9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과대학 및 학생을 위한 공학교육 혁신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 지원 사업은 공과대학 스스로 공학교육 혁신을 위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체 수요와 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창의 공학 인재 양성 및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된 사업이다.

올해는 주관 대학과 참여 대학 2개 유형으로 공모해 74개 대학을 선정했다. 우리

전쟁 속 희망의 손길을 건내다

우크라이나 유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장학금 전달식

우리 대학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학생 및 입국 예정 학생을 돕기 위해 1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 전액 4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유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건 인도적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 중에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차별한 폭격과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 상황으로는 러시아가 돈바스뿐만 아니라 남부 지역 장악에 나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남동부 자포리자 방어에 힘쓰고 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갇힌 가운데 러시아 측에서 현재 휴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UN OCHA 4월 1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 사상자는 4,239명, 피난민은 1,0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폭격으로 인해 전기, 수도, 도로, 주택 등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으며, 대피 시설, 긴급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부 물결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재난 구호 활동과 외에도 일반 시민들의 기부와 도움의 손길을 자아냈다. 미국 유대인 공동 위원회(JDC)의 선임 기금 모금이 지난은 이 기부 행렬에 이후 놀랄ほど 밝혔다.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1,750만 달러, 한화 약 251억을 모금했기 때문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170만 달러, 한화 약 141억 원을 모금했는데, 이 중 98만 달러, 한화 약 11억 원이 인스타그램 모금금액이다. 아프가니스탄 긴급 모금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이 3만 달러, 한화 약 3,7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역대 인스타그램 모금 캠페인 중 최고 수준의 모금이었다.

약 4배 이상의 모금이 진행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400만 달러, 한화 약 49억 원을 후원했다.

이영애, 김세정, 박서보, 화백, 박하선 등의 공인들과 카카오, SK, 삼성 등의 국내 기업 역시 기부 행렬을 이었다. 독특한 기부 방식으로 후원의 손길을 내민 이들도 있다. 풀란드 게임 개발사 11비트 스튜디오의 경우, '니스 위 오브 마임(This War of Mine)'이라는 게임이 그중 하나다. 이 게임은 2014년 출시작임에도 지난 3월 2일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인기 순위 79위와 14위를 기록했다. 게임사가 할인 행사를 연 데다가 모든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적립자사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구매 행렬이 이어졌다.

네이버 해피빈의 경우, 긴급 의료 지원, 구호 물품 지원, 생계 지원 등의 인도적 후원 모금 활동에 이어 아동 친화 공간 구축 운영, 학습용 키트 지원 등 분야로도 거주지를 잃은 아동과 가정 지원,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사회적 지원이 전시 진행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디지털 지갑 주소를 공개하고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시작한 뒤 '코인 기부'에 동참한 사람들도 많았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힐립틱'

김규리 기자
0rlarbf1@gmail.com

개교 30주년 학생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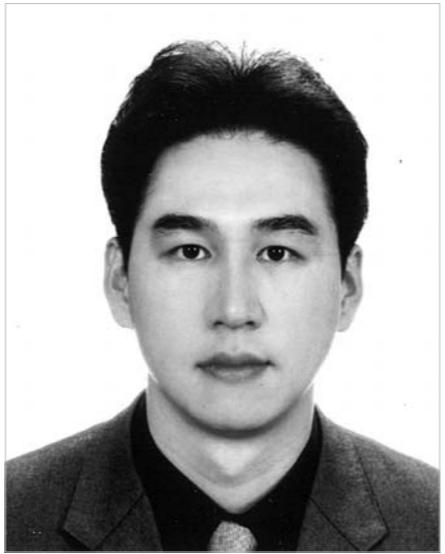
우리 대학을 빛낸 모교 출신 교수와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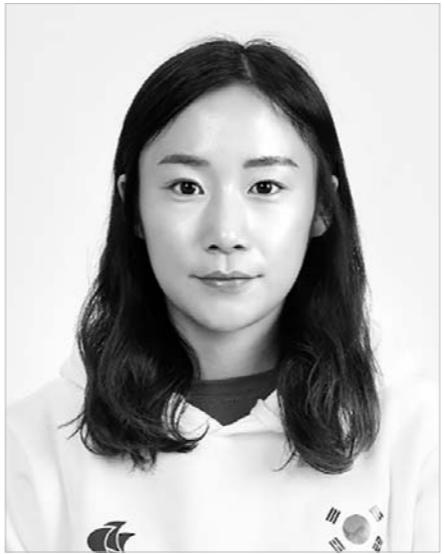
▶ 디지털콘텐츠학부 이동훈 교수



▶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도운 교수



▶ 디지털디자인학부 서한석 교수



▶ 동서대졸업생 이영은 선수

개교 3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우리 대학이 발굴한 인재도 꽤 많다. 이번 우리 대학을 졸업한 박경미 졸업생이 제작한 농심 신라면 광고가 뉴욕 시티투어버스 전면에 그려져 꽃곳을 달리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박경미 졸업생은 우리 대학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쿨'을 이수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월 미국 LA 광고대행사인 웬컴 인터내셔널에 취업했다.

웬컴 인터내셔널은 농심 아메리카로부터 신(辛)라면 광고 의뢰를 받았고, 박경미 졸업생이 이 광고를 주도적으로 제작하게 됐다.

디지털콘텐츠학부 이동훈 교수와 함께 입학한 모교 출신으로 첫 번째 동서대 교수가 됐다. '1992년 동서대에서 처음 입학했을 당시에는 학교가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보면 다들 '잘 나가는 대학'으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동서대 위상변화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모교 출신 교수들도 받은 충격이 대단했다. 우리 대학에 졸업 후 모교 강단에 선 교수들은 '충격적이다', '정말 놀랍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

된 모습을 설명했다.

기획평가처에 따르면 모교 출신 교수는 벌써 3명으로 늘었다. 이동훈 교수는 2004년 9월,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도운 교수는 2005년 3월 임용됐다. 디지털디자인학부 서한석 교수는 2006학년도 신임 교수로 최종 확정됐다.

동서대 역사가 개척기를 거쳐 이제 큰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교 2년째 입학한 정도운 교수는 졸업 후 부산대 석사·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대학을 죽지 않았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에 기습 뿐만 아니라 기뻤다.

특히 전에는 누리사업 선정 등 외향적으로 대학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외부에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수사례 발표회·학회에 나가 우리 대학의 사례를 발표하면 세정 명문대학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지원을 구하고 웬치마킹을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실력으로 확신한 입지를 굽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라고 전했다.

내년 3월 우리 대학 강단에 서는 서한석 교수는 '디자인학부에서 처음으로 모교 출신이 교수가 돼 책임감이 무겁다'며 "후배들이 이제 나가는 대학으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동서대 위상변화에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라고 밝혔다.

모교 출신 교수 3명은 예전에 남다르다. 돈을 생각한다면 다른 길을 갔을지

모르나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모교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 모교로 돌아왔다 말했다.

이동훈 교수는 "경북대·안동대에서 시간 강사를 했지만 모교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라며 "동서대 졸업했다는 것을 모든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전력을 쏟는다"라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일"이라며 "패배감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가질 때 성공적인 대학생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멀티미디어디자인공 쇠사학과 ▲영상콘텐츠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인도네시아 마트루스 산토소 (Markus Santoso)가 올해 9월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Montclair State University 조교수로 임용됐다.

장제국 총장은 산토소씨의 임용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참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자로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도드린다"라고 전했다.

최혜미 기자
qpfhslzk1542@gmail.com

각종 국내외 대회서 꾸준히 성적을 내어왔다.

수년간 전국 카이트보딩 대회에서 1위를 유지했고, 2018 Thailand Kiteboarding Championships 프리스타일에서도 아시아 챔피언에 올랐었다.

이영은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이루어내 정말 행복하다. 향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서 국내 해양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부산요트협회, 동서대학교, 한국 카이트보딩협회, 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등에게 감사드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멀티미디어디자인공 쇠사학과 ▲영상콘텐츠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인도네시아 마트루스 산토소 (Markus Santoso)가 올해 9월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Montclair State University 조교수로 임용됐다.

장제국 총장은 산토소씨의 임용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참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자로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도드린다"라고 전했다.

한국 영어에 큰 족적을 남긴 임 감독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

부산 고교생 영화 관련 진로진학 지원

영화 진로동아리 '나의 꿈, 레디 액션!'



▶ 2022 영화 진로동아리 '나의 꿈, 레디 액션!' 업무 협약식

지난달 5일, 우리 대학 임권택 영화연구소는 센텀캠퍼스 민석 소극장에서 부산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와 2022 영화 진로동아리 '나의 꿈, 레디 액션!'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영화 관련 진로진학 지원 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우리 대학 임권택 영화연구소가 주관하는 '나의 꿈, 레디 액션!' 사업은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특성을 살린 영화 관련 진로체험, 영화 제작 체험을 통한 문화 예술, 학술 기획, 진로체험 등을 시나리오, 포스터, 일 감독에 대한 논문과 책들이 모아져 있다.

또 베니스영화제 홍금곰상을 비롯한 영화제 트로피와 일 감독 작품 사진, 활용 현장 사진, 국내외 영화제 수상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천년학' 기획에서 제작, 마케팅, 배우 의상, 소품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의 전 과정을 전시한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편의 영화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눈에 띄게 되었다. 영화연구소에는 영화 상영실도 만들어져 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임권택 감독을 연구하면서 이곳에 오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일 감독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임권택 영화연구소에 대해 영화전공 박건섭 교수는 "100편의 영화를 만든 일 감독의 역사는 바로 한국 영화의 역사"라며 "단순히 영화인 한 사람의 발자취를 모아 두었다가보다는 한국영화 역사를 전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영화에 큰 족적을 남긴 임 감독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

문화콘텐츠 특화 SW융합인재 양성

SW중심대학 중 3번째로 많은 과제 확보



▶ 동서대 SW학과의 학부생연구(URP)사업 AI분야 전국 최다 확보

우리 대학 SW융합대학은 SW융합교육 핵심 인프라이너 SW중심대학 사업의 교육부문 중심 거점이다. 5개 SW중심학과(SW학과, 정보 보안학과, 계약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두고 개별 전공과 'AI 공학', '빅데이터' 2개 'AI 심화 트랙'을 운영한다.

우리 대학과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교육을 목표로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SW) 융합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AI 전공 SW융합인재를 길러내는 2개 AI 심화 트랙은 우리 대학 SW융합교육의 지원팀을 알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5개 SW중심학과 학생 200명 모두 기본 전공과 15개 이상 AI·빅데이터 과목을 이수해 AI·빅데이터 부전공 및 복수 전공 학위를 받는다.

'AI 콘텐츠' 전공 학생은 지난해 11월 실습과 기상 배우를 동시에 캐스팅한 '흔한현실(MR) 메타버스 뮤지컬'을 공연해 호평을 받았다.

문미경 단장은 "SW융합전공과 SW연계 전공을 일족으로 협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AI-SW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라며 "기존 대학 SW교과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교육시스템에 반영해 SW교육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인 점도 동서대 SW교육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 신입생 전원은 교양필수로 코딩 과목을 이수한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코딩 과목 이수가 부담스러운 문리대나 예술대, 체대 학생을 배려해 체험형 커리큘럼을 개발, 교양선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 SW중심학과인 정보 보안학과와 SW비전공 경찰학과를 연계해 포렌식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 수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최혜미 기자
qpfhslzk1542@gmail.com

민석도서관 독서클럽, 우수사례 선정

민석도서관 2022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 구성



▶ 2021-2학기 독서클럽 최우수, 우수팀 수상자

민석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클럽은 2012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통한 지식 정보의 획득,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배양,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대학의 도서관은 1992년 동서공과대학의 개교와 더불어 그 역사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며 자료정보 센터로서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를 원활히 지원해 왔다.

2022년 1학기 프로그램 모집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모집 결과 총 25팀 201명(멘토 21명, 학생 18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간호학과(36명)와 연기과(31명)의 지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독서클럽은 5~10명의 멘토와 팀원들이 주 1회 이상 자율 토론 모임과 3주 차 공식 토론 모임을 갖고, 도서 3권의 독후감과 자료모임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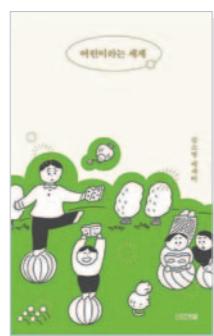
3월 23일~24일 양일간 각 팀의 조장과 회원에게 OT를 진행했으며, 자율토론 모임, 공식 토론 모임, 발표회, 독후감 작성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도서관 특별회원 등록, 개인 도서 제공(3권), 학습 포인트, 우수 팀 시상(총장상과 시상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학기 지정도서는 마이클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활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멘토 교수와 학생들의 적극 참여와 노력에 힘입어 2020년 우수 비교과

최혜미 기자
qpfhslzk1542@gmail.com



세상에는 늘 어린이가 있다



• 책 제목 : 어린이라는 세계
• 책 저자 : 김소영
• 출판사 : 사계절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당신의 '어린이날'은 무엇인가? 저자는 '어린이라는 세계를 발견하고 보호하고 일컬어 세우는 날'이라고 정의했다.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했으며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책을 읽는 저자는 많은 어른이 여전히 사회 구성원인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썼다. 저자도 처음부터 모든 어린이를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며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을 배우고, 아이들의 불편을 공감하며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이 됐다. 그리고 책을 통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 저자가 모아본 '귀하고 아름다운'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

어린이 해방의 날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 부

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여유를 허하게 하라' 일제강점기의 어린이날 선언된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키즈존'으로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저자도 시끄러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차별과 혐오임을 느끼고 의식적으로 '아기가 피곤한가 보구나' 하고 생각하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더 많이 알고 더 누린 사람에게 잘 모르고 경험 없는 사람을 고려해 주는 것. 용기와 관용이 필요하지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어린이뿐 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도 관용이 필요하다.

사랑이라고 해도 될까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저자는 사랑에 돈이 개입된다는 것에 대해 고민한다. 그 사이 이미 어린이는 결론을 내어버렸다.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것이다. 내가 사운이니 뭐니 하며 제는 동안에 사랑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어린이로부터 내 쪽으로, 더 많은 쪽으로.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를 기다릴 수 있는 다른 어른은 성장할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자랄 수 있다. 어린이를 기다리는 일은 어른의 성장이다.

악동

모든 어린이는 악동을 무서워한다. 하지만 어떤 무서운 악동이라도 혼자 용기 내어 이겨낸다. 그것이 무서움의 가치다. 하지만 모든 무서운 일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어린이가, 청소년이, 어른이 '여성'이라서 겪는 무서움은 세상을 춤추고 무너뜨린다. 그에 대한 유일한 답은 관용 없는 처벌, 범죄자는 어

디에서도 여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확신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는 어린이를 피해자로도 가해자로도 키우지 않을 수 있다.

신발 끈 묶는 어린이

어린이는 신발을 신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른의 시선으로는 일부러 꾸물거린다고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도 기다려주는 어른을 만나지 못한 체 성장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어린이를 기다리면 어린이는 나중에 다른 어린이를 기다릴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자랄 수 있다. 어린이를 기다리는 일은 어른의 성장이다.

세상에는 늘 어린이가 있다

우리는 어린이를 자라서 어른이 될 과정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 자신을 노인이 될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어린이도 미래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한 어린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새로운 어린이는 태어난다. 그렇기에 어린이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고민해야만 한다. 어린이가 일으키는 말썽, 사고의 많은 부분은 어른에게 맞춰진 세상에서 어린이는 언제나 적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가령 여행을 가는 어린이는 키보다 높은 매표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싶고, 키보다 높은 책장의 책을 알고 싶다. 이런 어린이들을 이해해 보자.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은 5월, 어른의 멋진 여유를 어린이에게 보여 줄 시간이다.

최지혜 수습기자

학보의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대학 언론의 모든 것에 대해



▶ 최초의 대학 신문 송답시보



▶ 대학신문

▷ 사진출처-한국학중앙연구원

합치면 매회 100만 부나 된다.

대학 신문의 기능

일반 신문과 마찬가지로 뉴스 보도, 오락 및 광고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각종 교내 뉴스를 전달해 주고, 건전한 오락을 제공해 주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이나 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동서대학보

우리 대학 신문사는 개교 초반부터 함께 했다. 매 월, 매 학기 4회씩 발행되는 순수 대학 신문이다. 신문 밭간에 어려움을 겪어 평가는 대학 신문이 많은데, 동서대학보는 1995년 9월 1일 창간 이후로 지금까지 그 역사를 유지하고 있다.

구성

총 8면으로 구성돼 있다. 1면은 종합면으로, 우리 대학의 협약이나 성과 등과 관련된 기사를 작성한다. 2면 대학면에서는 학생들의 활동, 공모전 수상 등을 위주로 기사를 작성한다. 3면인 취업 글로벌은 직업, 취업에 관한 것들이나 학생들의 취업 활동 위주의 기사. 4면 문화면은 대학생들



이달의 영화 - 김메이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이겨야 하는가



• 영화 제목 : 김메이커
• 영화 감독 : 변성현

"세상이 바뀌는 풀 품 보고 싶다"라는 서장대의 대사에 김운범은 생각을 다시 한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했고 시간이 흘러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의 시점으로 변환된다.

선거 초기 김운범과 서장대는 서로 다른 정치 방식으로 인해 함께 하지 않는 중이었다. 그러나 김운범은 상대 후보와의 경쟁에서 고전을 겪는다. 그 당시 여당 소속이던 상대편 후보자는 정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지층을 얻고 나아가 승리하기 위해 뇌물을 시민들에게 나누어주기까지 한다. 이에 따라 김운범은 다시 서장대를 불러들인다. 서장대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바로 상대편 후보자 준 뇌물을 시민들에게서 다시 뺏음으로 시민들의 반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위기는 반전됐고, 결국 목포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운범이 승리하게 된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모종의 과정을 거친 뒤 김운범은 대선의 무대까지 나아간다.

당시 여론이 좋던 김운범에 대선을 노리고 있다.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 시민들의 북한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분위기를 뒤집고자 한다. 바로 김운범이 친북 세력이며 집권할 시 국가의 안보가 훈들린다는 것이다. 이에 서장대는 회심의 카드를 꺼내는데 비로 김운범이 테러를 당하는 '쇼'를 만들어 연출한 뒤 이를 집권 정부의 공작이라 밝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이다. 그런 서장대에게 김운범은 크게 실망하며 비난한다. 그렇게 들은 끝내 방향을 달리하고 서장대는 집권 여당의 편이 되어 다시 한 번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일한다. 그가 이번에 이용한 것은 바로 지역갈등이다. 특정 지역을 언론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시민들에게 지역갈등을 조장하여 표를 얻는 것이다. 이는 크게 성공하였고 결국 대통령은 다시 당선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서장대가 승리를 위해 사용한 갈등은 예전부터 다양한 목적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됐다. 갈등을 이용하면 상대 편을 싫어하는 이들이 자신의 편이 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사용되는 것이다. 그 예로 영화에서는 지역 갈등을 사용하여 대선에 승리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중은 은연중 학습된 분노를 바탕으로 갈등의 원인이 된 사회 문제의 해결에 힘쓰는 것이 아닌 서로를 비난하거나 더욱 갈등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갈등과 혐오의 정서가 최근에는 각각의 현실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더욱 심화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를 헐뜯고 비난하는 혐오를 기반으로 양자 후퇴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화합과 포용, 소통을 통해 공존의 세상을 열어야 가야 한다. 영화 초반 서장대는 말한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운범은 영화 후반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어쩌면 다양한 경쟁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새 잊고 지나쳐간 것들이 많지는 않을까?

지금 캠퍼스인 아름다운 벚꽃이 지고 새싹이 자라고 있다. 좋은 벚나무는 뜨거운 태양과 물어치는 비를 받아내며 아름다운 벚꽃이 활짝 흰 꽃을 흔운다. 꽂처럼 어여쁘게 성장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벚나무처럼 비를 고친 것 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일자라도 받아내어 자양분으로 삼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도연 수습기자

축제·공연 소식



빛의 마술사 모네와 인상파 체험전

• 기간 : 2022. 05. 03(화) ~ 2022. 05. 29(토)
• 장소 : 을숙도문화회관 1층 갤러리
•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입장료 : 무료



BYU 영 앰배서더스 2022년 한국 투어

• 기간 : 2022. 05. 05(목)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미국 브리검 영 대학교
• 입장료 : R석 2만 원/S석 1만 5천 원/A석 1만 원



Snoopy, Beyond the Space

• 기간 : 2022. 05. 05(목) ~ 2022. 09. 11(일)
• 장소 : KT&G 상상미당 부산 갤러리
• 주최 : 코너랩스 주식회사
• 입장료 : 성인 1만 5천 원/아동·청소년 1만 2천 원



유니버설밸레단 <돈키호테>

• 기간 : 2022. 05. 13.(금) ~ 2022. 05. 14.(토)
• 장소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8만 원/S석 6만 원/A석 4만 원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

• 기간 : 2022. 05. 19(목) ~ 2022. 05. 20(금)
• 장소 : 부산문화회관 종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3만 원/S석 2만 원



해운대 모래축제

• 기간 : 2022. 05. 20(금) ~ 2022. 05. 23(월)
• 장소 :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광장 일원
• 주최 : 해운대구
• 입장료 : 무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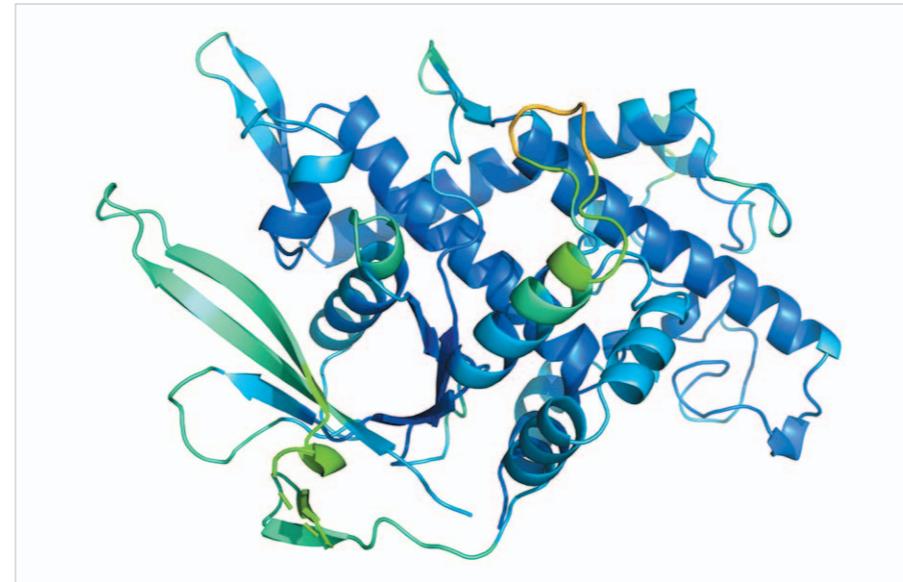
• 기간 : 2022. 05. 26(목)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 입장료 : R석 1만 원/S석 5천 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우리 대학의 발명이야기



▶Laboratory



▶단백질의 3차원 구조



▶Smart Label Package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5월 19일로 정한 이유는 측우기의 반포일이 1441년(서종 28) 4월 29일(양력으로 5월 19일)인 것에 연유한 것이다.

발명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킨다. 스마트 폰이 나오기 전에는 TV, 라디오, 전화기, 사진기 등 각각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개체였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 폰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메일, 웹브라우징, 인터넷 쇼핑, TV와 라디오 시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발명이 우리의 일상을 바꾼 것이다. 이런 생활에 영향을 주는 발명과 함께 현재의 과학 발명은 어디까지 도달했을까?

루게릭병 환자와의 소통

유명 과학 저널인 Nature에서 최근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이라고 불리는 병인 루게릭병에 걸려 소통이 힘든 환자가 뇌 신호만으로 의사소통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연구가 발표됐다. 루게릭병의 질환

초기에는 근육의 약화가 시작되며 이후 1~5년에 걸쳐 모든 종류의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에는 걷기, 말하기, 심기, 숨쉬기 등이 포함되며, 결국 숨쉬기에 관여하는 근육이 작동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다. 대부분의 경우 감각 및 인지 기능에는 영향이 없어, 환자는 자신에게 점차 일어나는 상황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병을 앓은 인물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스티븐 호킹이다. 스티븐 호킹은 21살에 루게릭병을 진단받았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자 노력해 사망에 이르렀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눈동자나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의사소통 기계를 사용했다. 이 의사소통 기계를 통해 기계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했다. 이

발명은 루게릭병이 끝까지 진행돼 눈동자마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즉슨 '몸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Completely locked-in state)'라 불리는 막막한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뇌 신호만을 추출해서 의사소통에 성공한 연구다. 연구의 제목은

락한다면 막을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연구된다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 중 '인간 막 단백질 접합의 직접 관찰을 통한 접합 경로 규명'이라고 하는 이 연구는 자석에 힘을 아주 강하게 줘서 단백질을 펴고 다시 자석을 약하게 해서 다시 접하는 기술이다.

이 연구에서 막단백질을 완전히 풀어낸 뒤 다시 힘을 낮춰 나선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막단백질이 접히는 현상을 처음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쓰면 쓰기 쉬운 것처럼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알게 된다면 치료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 안에 자살 기능이 탑재돼 있다. 암은 이러한 자살 기능을 막아 무제한 증식해 형성되는 악성 종양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막단백질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런 자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 암들이 증식하지 않고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병을 극복하는 기술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세포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안테나를 '막단백질'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막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런데 황제 신약은 모두 막단백질을 연구하여 나온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막단백질을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오미크론과 같은 변종도 막단백질을 공

략한다면 막을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연구된다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 중 '인간 막 단백질 접합의 직접 관찰을 통한 접합 경로 규명'이라고 하는 이 연구는 자석에 힘을 아주 강하게 줘서 단백질을 펴고 다시 자석을 약하게 해서 다시 접하는 기술이다.

이 연구에서 막단백질을 완전히 풀어낸 뒤 다시 힘을 낮춰 나선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막단백질이 접히는 현상을 처음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쓰면 쓰기 쉬운 것처럼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알게 된다면 치료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 안에 자살 기능이 탑재돼 있다. 암은 이러한 자살 기능을 막아 무제한 증식해 형성되는 악성 종양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막단백질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런 자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 암들이 증식하지 않고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우리 대학의 발명

세상을 바꾸는 것만이 발명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제품들의 디자인도 발명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수상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수상작 중 하나인 Smart Label Package는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의 표기자가 작게 되어 있어 유주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섭취하는 아이들을 방지하기 위해, 우유 패키지에 번역 잉크를 도포해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난면 'Milk' 가 'ill'(=나쁜, 유해한)로 바뀌는 '스마트 라벨 패키지'를 제작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유주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고, 상한 우유를 마시지 않을 수 있다.

끝맺음 말

발명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사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모른다.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뒤틀어야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구조를 분석해 유전자자를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는 식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만들고 있다. 또한 우주의 빅뱅 직후 모습과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최고 성능을 가진 제이슨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 있다.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발명을 통해 현재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발명의 날, 스마트폰, 암
Nature – 루게릭병 환기환자 의사소통
동아사이언스 –
인간 막 단백질 접합경로 첫 규명
주태연 수습기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으로 오시리아

동화 속 왕국에서 추억을



▶롯데월드 어드벤처 조감도



동화 속 왕국

로리 여왕이 다스리는 동화 속 왕국을 콘셉트로 짠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6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돼 있다. 테마파크의 중심에 있는 요정 마을 광카 폴스 존에 존재하는 대형 나무 '보킹 트리'가 6개 테마존의 스토리를 펼쳐준다. 테마파크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로열 가든 존에 존재하는 '로리 캐슬'은 롯데월드 부산의 상징으로 물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캐슬로 연출됐다. 로리 캐슬을 올라가 밖을 바라본다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전경과 함께 부산 기장 앞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신나고 즐거운 어트랙션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있는 17종의 탑승 및 관람 시설로 롯데월드 부산의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자이언트 디거(Giant Digger)',

'자이언트 슬래시(Giant Splash)' 등 3종 대표 어트랙션은 스크립을 즐기는 방문객들 사이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다는 기愫로 떠오르고 있다. 자이언트 디거는 론치형 롤러코스터로 최고 속도 105km/h로 약 1km의 트랙을 빠르게 주행하며 미주하는 3번의 360도 회전 구간에서는 온몸이 짜릿해지는 극강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자이언트 슬래시 또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워터 캐스터로 높이 44.6m에서 2000톤의 물이 담긴 수로를 향해 100km/h로 급하강하며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킨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벼락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흥미로운 점은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면 롤러코스터의 레일을 따라 음식이 내려오는 '푸드 드롭' 페스토링이 있어 이는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를 더한다. 슬립 넘치는 기구만 보유한 것이 아닌 유아를 동반한 가족 이용객을 위해 어린이 전용 어트랙션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이드북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30분 동안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직 포레스트에서 떨어지는 작은 파티인 미니 퍼레이드 출연자를 모두와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과 퍼레이드는 기상변화 및 파악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행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우대혜택

개장과 동시에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가격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놀라 오는 방문객이 많다. 롯데카드 사용자라면 정상가에서 반값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적용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롯데카드 외에도 PAYCO 프로모션 또한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반 입장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주차 우대와 우선 탑승이라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을 끊어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롯데월

드의 5월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말고 모두 혜택을 받아 즐거운 기억을 만들기를 바란다.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오시리아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족의 달 5월에 수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롯데월드로 온다면 행복한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놀이 기구와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롯데월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끊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끼리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눈과 귀가 즐거운 퍼레이드와 공연, 몸이 신나는 다양한 놀이 기구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로 가득한 롯데월드로 올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자료출처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김선희 수습기자



빙글빙글 돌아가는

서예지(광고홍보학과·4)

누구나 한 번쯤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맷돌'이라는 문장을 봤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바로 '谤구는 못 말려'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극 중 캐릭터 맹구가 부른 노래 가사 중 일부이다. 사실 이 노래를 요즘 자주 흥얼거리고 있다. 중독 성 있는 멜로디이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아가는'이 문장이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올해 4학년이 된 나의 학교생활은 빙글 빙글 돌아가고 있다. '빙글빙글'이라는 말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단지 멀게만 느껴졌던 4학년은, 마음의 준비 없이 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어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실감을 못 하고 있는 중이다. 설문지에 학년을 기재할 때 3학년이라고 쓰고, 한참 뒤에 '4!'하고 4학년으로 고치기도 한다. 그리고 자꾸만 2021년이라 적는다. 바뀐 숫자에 적응하는 데에는 평균 시간이 걸리는 거 같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천천히 익숙해지는 법. 아마 1학기가 끝날 때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익숙해져 있지 않을까.

확실히 4학년이 되니 수강하는 수업도 적다. 물론 매 학기 학점을 꽉 채워서 들은 것도 없지 않다. 이번 학기는 1학점을 신청하여 수강 중인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만 수업이 하나씩 있으며 심지어 오후 수업이라 저번 학기에 비해 여유가 페 있다. 그럼에도 쉴 틈 없이 바쁘다. 직접 학기에 비해 더 바쁘다. 바빠서 힘들기도 하고 정신이 있지만 오히려 좋은 거 같다. 왜냐하면

잡생각 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유가 아예 없는 건 안 된다. 쉴 때는 쉬어야지.

4학년 학교생활은 별거 없지만 텁풀, 밥, 건강 3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겠다. 먼저 텁풀이다. 우리 학과는 텁풀을 빼놓을 수 없다. 1학년 때부터 텁풀이 시작된다. 그냥 모든 전공이 텁풀이라고 보면 될 거 같다. 많개는 한 학기에 다섯 개까지도 해보고, 하루에 회의 3량도 뛰어봤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랬나 싶기도 한데, 최종 결과물을 보며 힘들었던 한데, 기억이 미화된다. 불행 중 디자일까. 생각해 보면 그러한 성장 발판이 있었기에 지금의 4학년까지 무사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한다.

3학년 2학기~4학년 1학기 연달아서 하는 'IFS'라는 전공 수업이 있다. 부산 내 3곳의 기업과 협업하여, 한 학기 동안 기업의 흥보물을 제작하는 수업이다. 기업 중 한 곳의 소통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나 하고 싶었던 곳이어서 개강하고 며칠 안 돼서 바로 연락을 했다. 혹시나 협업이 안 될까 봐 조마조마했으나, 다행히도 기업 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에 한 학기 동안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곳의 소통을 내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나머지 부담감이 있다. 부정적인 느낌의 부담감은 아닌 거 같다. 그냥 별 탈 없이 무사히 협업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두 번째는 밥이다. 밥은 학교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요일

과 수요일 수업이 18시에 끝나서 항상 수업 끝나고 딥원들과 저녁을 먹는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뭐 먹을지 메뉴를 정하는 것과 늘 새로운 메뉴를 찾는 그런 설레임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딥원들과 갔던 학교 밀 주꾸미 집이 자꾸만 생각난다. 그렇게 맛있는 주꾸미볶음은 태아나서 처음 먹어봤다. 특히나 주꾸미볶음 안에 들어 있던 우동 사리는 추가로 넣고 싶을 정도로 맛있었다. 덕분에 학교 근처 몇 안 되는 최애 밥집 중 하나가 되었고, '내 일은 또 무엇을 먹을까'하는 기대감과 함께 학교를 간다.

마지막은 건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어서, 개강 전에 분명히 헬스장을 끌어 이끌었다.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말만 하고 끝이 났다. 항상 계획은 거창한 반면, 실천은 안 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비타민이라도 꾸준히 먹기로 결심했다. 과연 차선책일까.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D를 먹고 있는데 아직 별 효과는 없는 것 같다. 계속 마다 보면 효과가 보이겠지?

어느덧 5월을 마주하고 있다. 추워서 페딩을 입고 다니던 때가 엿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의 4학년 1학기도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았다. 과연 남은 동안 어떻게 지낼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면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해야겠다. 별 탈 없이 막 학년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학기가 무사히 마무리되길.

죽비소리 편지

이시은(광고홍보학과·4)

이 아니기에 처음엔 웃찔 놀랐지만 나 또한 사랑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대로 빠져버렸다. 매일을 마주할 때마다 좋다고 말하고, 그게 넘칠 땐 찾았다가 좋아한다고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해봤다. 얘들은 내가 이상하다고 한다. 이상하고 좋다고 한다.

C는 잘 모르겠다. 내가 그에게 달력을 물은 물을 하나에, 사실 그렇게 신경 써줄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내 생각이다.) 회화 빠곡히 정성을 들어 나에게 답을 했었다. 그때의 감정은, 말 그대로 감동이었다. 그는 종종 내가 하는 말을 좋아했고, 나는 웬지 그래서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좋았다. 나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았다.

D는 떠올려보면 항상 나를 궁금해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나를 묻고 궁금해했다. 그를 보고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듯하다. 나는 사실 일정 부분 방어가 많아서, 내가 허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나를 쉽게 드러내지도 않고, 내 안에 단계가 참 많은데, 그는 그러지 않아도 편찮을 수 있다는 것을 곁에서 알게 해줬다. 솔직하고, 펼털하고, 재밌는 것은 멋진 일이다.

E는 사실 어쩌면 처음엔 데면데면했다. 그래도 동기 수가 워낙 적어 오며 가며 볼 수 있었던 그의 모습에선, 그냥 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다. 지나고, 지나고 보니 이제 그와 가까워졌다. 내 생각처럼 그는 낯을 가리는 거였고, 그렇게 곁에서 본 그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을 쟁기단 걸 알게 되었다. 따뜻함은, 또 따뜻함을 넣는다.

생각지도 않게 나에게 베풀어주던 따뜻한 마음들과 웃음을, 내가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면 그는 나를 웃힐 뿐이다. 그러나 다들 겁내지 않았으면 한다. 곧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출발이, 어찌 보면 멀리기도 두렵기도 할 테지만,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느끼고 그 세상에도 분명 마찬가지로 사랑이 존재할 테니, 차분히 침착하게 자연스럽게.

이건 어쩌면 나에게 하는 주문이고, 그에게 하는 당부이며, 내가 겪은 것을 앞으로 겪을 이들에게 하는 응원일 것이다. 우리가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외에도 글을 보고 있다면 다 당신 이야기다.

서론 살 동서대가 가야 할 길

본'에서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10년 이상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의 기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따르기보다 오랫동안 지속된 습관과 직원들의 독자적 경향이 반영되어 운영된다는 것이다. 조직의 습관을 다르게는 조직의 전통이라고도 표현이 가능하다. 동서대학교의 습관은 전통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동서대학교는 타 대학에 비해 좋은 전통을 이어왔다. 예를 들면 동서대 직원 회식 및 음주문화가 있다. 교수와 직원들의 학생 및 학교를 향한 현신적 태도이다.

이러한 전통이 30년간 동서대학을 신명으로 일구어온 것이다. 그동안은 좋은 습관을 더 든든히 세워야 한다. Duke University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 습관이다. 조직에서도 습관이 있다. 리처드 넬슨과 시드니 윌터의 공동 저서 '경제 변화의 진화' 이

연관성이 있다.

성경 잡언 23장 7절에는 '그 마음의 생각(가치)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라고 기록했다. 그 사람이 갖는 가치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라 뜻이다. 시대는 격변하고 있다. 인간상에 있어서도 다양화의 재능과 창의력을 가진 인간에게 르네상스 이후 한 분야만을 깊이 아는 전문가를 선호하는 시대로 옮겨왔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과거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에서 전혀 다른 행동과 태도가 나온다. 그것이 습관이 된다면 그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된다. 동서대가 풀어왔던 가치와 그에 따른 좋은 습관과 전통이 30년을 이끌어왔다. 이제 이 깃발을 더 확고히 들고 100년을 향해 뛰자.

목회 칼럼



최민구 교목실장

보 시대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되지 않은 듯한데, 세상은 빛의 속도로 디지털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 과파라고 불릴 만큼 교육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이와 같은 시대에 30주년을 맞이한 청년 동서대학교는 과연 어떤 뜻을 세워야 할 것인가?

첫째, 가치가 이끄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동서대학교는 사람을 길러내는 전당이다. 곧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교육의 장이다. 현대 사회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대개 '성과'에서 찾으려 한다. 그러나 '성과'는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약 존재의 근거를 성과에서 찾는다면 성과가 있으면 존재할 근거가 있고 성과가 없다면 존재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세상에 둘 때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설립자 故 장성만 박사님은 네덜란드 세계적인 낙동국가로 일으킨 그룬트비 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려 했다. 그것

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셨다. 사람이 곧 학교의 가치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동서대학교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 창조, 복사'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라는 '진리'를 기초로, '창조'적인 인간으로 교육하며, 인류를 위해 '복사'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독교 전통 위에 동서대학교의 상아탑을 세웠다. 지금까지 이 가치가 동서대학교를 이끌어 왔다. 이 가치는 동서대학교가 100년 후에도 불어들어 할 가치이다. 이 가치가 이끌어가는 학교가 되어야 하자.

둘째, 좋은 습관을 더 든든히 세워야 한다. Duke University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 습관이다. 조직에서도 습관이 있다. 리처드 넬슨과 시드니 윌터의 공동 저서 '경제 변화의 진화' 이

전통을 이어왔다. 예를 들면 동서대 직원 회식 및 음주문화가 있다. 교수와 직원들의 학생 및 학교를 향한 현신적 태도이다.

이러한 전통이 30년간 동서대학을 신명으로 일구어온 것이다. 그동안은 좋은 습관을 더 든든히 세워야 한다.

Duke University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 생각하지 않고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 습관이다. 조직에서도 습관이 있다. 리처드 넬슨과 시드니 윌터의 공동 저서 '경제 변화의 진화' 이

이달의 명언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갈 때,
그 사다리를 봄 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엔리코 카투소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달아 간다
-앙드레 앤로

네 자신의 봉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익에 옥두하는 것이다
-베토벤

네컷만화

개교 30주년



사설

사람들은 왜 도시를 떠나는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도시의 갑갑한 삶에서 벗어나 시골이 주는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올해의 트렌드가 됐다.

올해의 트렌드 중 하나인 '러스틱 라이프'란,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에 여유와 편안함을 부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즉, 도시를 원전히 떠나 단절되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살면서도 삶에 소박함을 더하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다.

최근 SNS에서 해시태그 '#러스틱'을 검색하면 게시글이 넘쳐난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숙소뿐만 아니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품을 소개하는 게시글이 많다.

밀레니얼 세대는 현대 문물보다 오히려 자신이 경험한 적 없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새로움과 색다름을 느끼고 있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시골 생활'이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 자연인의 생활을 다룬 TV 프로그램이 그동안 중장년층 이상의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MZ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생활

에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소 헌신적인 것이 되어 '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힐 플레이스'라 불리는 도심 속 공간을 찾는 게 일상인 생활이 되어, 보니, 조금 불편한 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러스틱 라이프가 주로받는 가장 큰 이유는 도시에서의 삶이 그만큼 각박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자연에 대해 갈증을 느끼는 '녹색 갑증(biophilia)'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자연적인 것'을 추구한다.

도시에서는 '녹색'을 만나기 어렵다. 캔들이나 부드 등을 통해 불을 가만히 바라보는 '불멍'이나, 식물로 집을 꾸미는 '플랜테리어' 같은 취미가 유행하는 이유기도 하다. 러스틱 라이프가 인기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러스틱 라이프는 우리에게 '녹색'을 충전하기 위한 시간이 됐다.

시골은 비일상과 냉민의 공간이나 나만의 특별한 아지트로, 도시와 대비를 이루기 때문에 시골살이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는 시골에서 사는 것이 아닌,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여유 시간을 시골에서 즐기는 것이다. 각자의 환경에 따라 누군가는 3일간의 도시 생활 후 4일의 시골 생활을 즐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는 4일을 일한 후 3일을 시골에 보내 수도 있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조정되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러스틱 라이프에 대한 동경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도시를 떠나 한적한 시골에 머물며 지친 몸과 마음을 푹 쉬게 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러스틱 라이프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크다. 농촌지역에 인구 증가 효과는 물론 농촌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러스틱 라이프를 올해의 트렌드로 발표한 김난도 교수 또한, "러스틱 라이프는 과밀한 주거·업무 환경에서 고통받는 대도시나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트렌드"라며 "경제 위축과 인구 감소로 고민이 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의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서만평

글·그림 정희진



■ 학생 인터뷰-제30대 총학생회 회장 김하용 학생

동서대에 새로운 '공명' 을 울리다

총학생회 회장 김하용 학생



▶김하용 총학생회 회장



▶제30대 공명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QR코드

모두의 시선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드디어 새로운 총학생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제30대 총학생회가 탄생했다. 그 이름은 '공명' 총학생회가 되겠다. 지금부터 1년간 동서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할 총학생회 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Q.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동서대학교 제30대 공명 총학생회를 이끌게 된 전자공학과 17학번 김하용입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총학생회 대외협력 국장을 맡았었고, 올해 3월에는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고 현재 제30대 공명 총학생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남들보다 조금 특별한 대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신기합니다.

Q. 많은 노력 끝에 제30대 총학생회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소감 부탁드립니다.

A.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고 동서대학교를 이끌어 가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광이지만 어깨가 무거운 자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추억과, 공정하고 명백한 동서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빌려서 다시 투표에 참여해 저를 선택해 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Q. 슬로건을 특히 '공명'이라고 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저희가 추구한 이미지와 가장 잘 맞는 단어라고 생각해 결정한 이름입니다. 공명의 한자는 공평한 풍과 밝은 명을 사용했습니다. 한자의 뜻 그대로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다가가고자 공명이라는 이름을 차택하게 됐습니다. 공명이라는 이름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총학생회 회장 선거에 나오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총학생회장에 도전해 보자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아주 큰 영광이고 값진 경험이겠지만 그만큼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으로서 겪는 불편함이 크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변화하여 많은 부분에서 제약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을 위해 혁신, 복지, 교류 등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저희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미소가 맵을 수 있도록 저희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봄 날씨가 물씬 다가오는 중에 20~22학번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박상욱 수습기자

A. 20~22학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을 재미있게 즐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행사로는 우선 선후배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엠티는 같은 학부끼리 뮤지컬을 가는데 다른 학부를 섞어서 엠티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속 학과 사람들만 만나는 것보다 학교 전체의 여러 학과 사람들과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다른 학부와 함께 엠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합니다.

Q. 공연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BACK TO 2019' 가 아닐까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A. 코로나로 인해 학우 여러분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행사, 소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아쉬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현재 코로나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불편함이 많았던 2020~2021년 때의 기억은 지난 2019년으로 돌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총학생회가 직접 나서 학우 여러분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추억을 제공할 것을 맡겠습니다.

Q.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들에게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신입생 여러분! 날이 선선하고 봄바람도 불어오는 요즘, 학교 캠퍼스는 여러분의 생기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으로서 겪는 불편함이 크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책이 변화하여 많은 부분에서 제약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을 위해 혁신, 복지, 교류 등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저희의 행보를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미소가 맵을 수 있도록 저희 총학생회가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Q. 새롭게 들어온 신입생들에게도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방송영상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안영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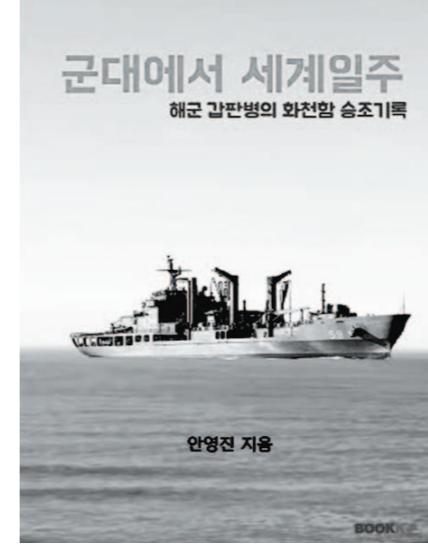
■ 학생 인터뷰-방송영상학과 3학년 안영진 학생

민석 도서관 사람책 읽기 1회차 주인공

방송영상학과 3학년 안영진 학생



▶안영진 학생



▶안영진 학생의 책, 군대에서 세계일주

애정하는 책입니다.

Q. 애정하시는 우당탕탕 남고라는 책을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고등학생이신 분들, 그리고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모두 학교는 달랐지만 광통적으로 공유하는 그때의 감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식, 수능, 야자 같은 거 말입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경험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한 번 꾀식했으면 좋겠습니다.

Q. 앞으로도 책을 출판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네, 있습니다. 언제 책을 다시 출판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 동서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동서대학교에 관한 책과 또 제가 드립 치는 것을 좋아해서 드립에 관한 책을 몇 권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책을 출판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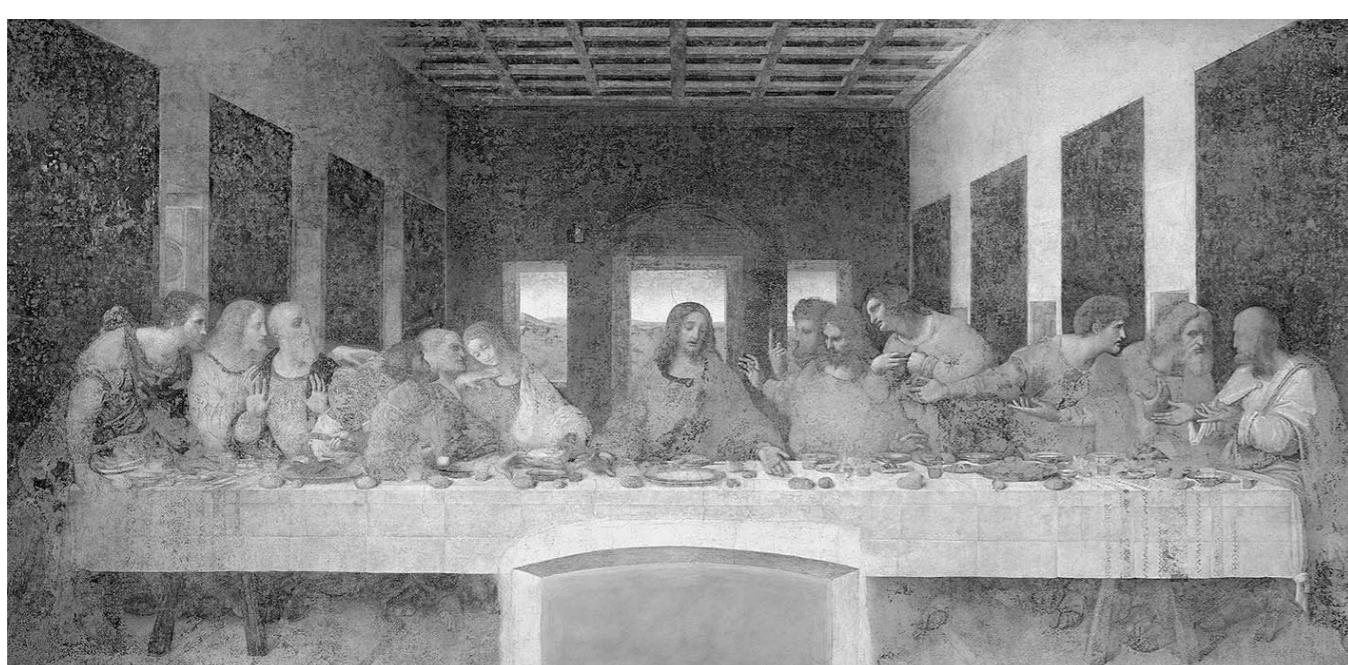
A.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만한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일단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먼저 글 쓰는 것에 그냥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은 1인 출판이 많고, ISBN이라고 책 분량이 최소 50페이지 정도가 되면 도서번호를 등록할 수 있고, 부크크라는 플랫폼은 자신이 편집만 할 수 있도록 책이 출판이 가능하니 누구나 책을 쓰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저의 책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닌 교회 분들을 포함한 저의 주변 지인들이 책에 대한 감상평을 말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저 책은 온라인으로만 구입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저 책이 구매가 됐다는 것을 보면 누가 샀을까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이 자리에 빌려 저의 책을 관심 있게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나영 수습기자

성경 속 음식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1495~1498. 이탈리아 밀라노

▷사진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속 빵과 포도주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다. 다빈치는 예수가 죽지 직전 마지막 만찬을 12인의 제자들과 즐기는 것을 묘사하였다.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그라치에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화로 남아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식사 장면하면 <최후의 만찬>이다. 최후의 만찬은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번쯤 보았을 법한 그림인데 오늘날 다양한 패러디의 소재와 예술 작품의 소재로도 쓰이고 있다. 오늘은

이런 <최후의 만찬>에 등장한 빵과 포도주를 알아보자 한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12인의 제자들과 체포되거나 전날 밤에 함께 식사를 하며 제자들 중 멀고자기 있음을 말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준다. 빵과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약간씩 다른데 그 중 누가 복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잔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자,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잘 들어라. 이제부터 하느님 나리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나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 하시고는,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뜻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여라.”라고 말했다. 음식을 나누는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맛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했다. (눅4복음 22 : 17~20)

최후의 만찬은 무교절의 첫날인 유월절에 이루어졌다.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时节하고 유행였느라. (눅4복음 22 : 15, 19~20)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에 그저 빵과 포도주를 먹었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순히 예수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마지막 만찬이 아닌 유월절 의식이었기 때문임을 알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26 : 17~20)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 즉 지나 가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애굽(현재 이집트)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유월절의 기원을 보자면 가나안 지역의 기원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는

데 이어 모세와 아론이 파리오를 찾았으나 그는 그들에게 능력을 증명 해보라마다. (출애굽기 5 : 1~3) 이에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을 실현했다. (출 7~12장) 그 중 마지막 재앙인 열 번째 재앙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천국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족의 처를 난 것을 다 치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의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리에 속임을 행하려고 하느님 나리가 올 때까지는 포도로 빚은 것을 나는 결코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음식을 나누는 뒤에 또 그와 같이 잔을 들어 “이것은 내 피로 맛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했다. (눅4복음 22 : 17~20)

이후로 유월절엔 양고기를 빵과 부풀지 않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데 이는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볼 수 있는 누룩을 멀리하는 행위이다. 해석해 볼 수 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 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출 23 : 15)

이때 무교병이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후의 만찬>에 올라간 빵 역시 누룩이 없는 무교병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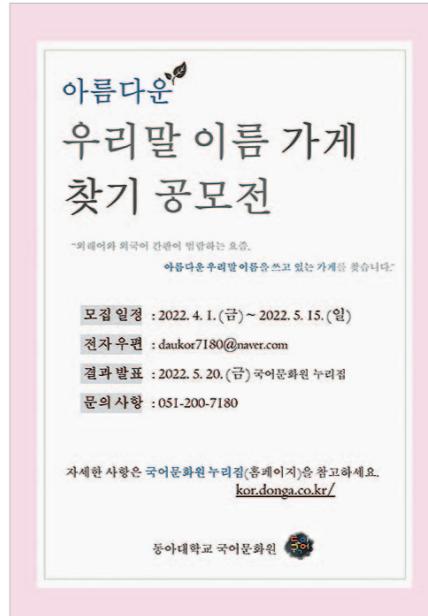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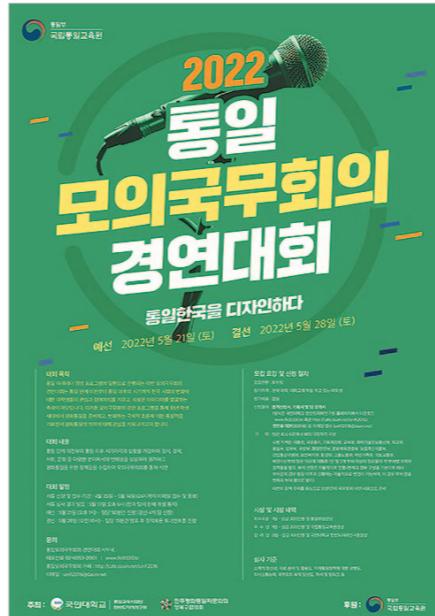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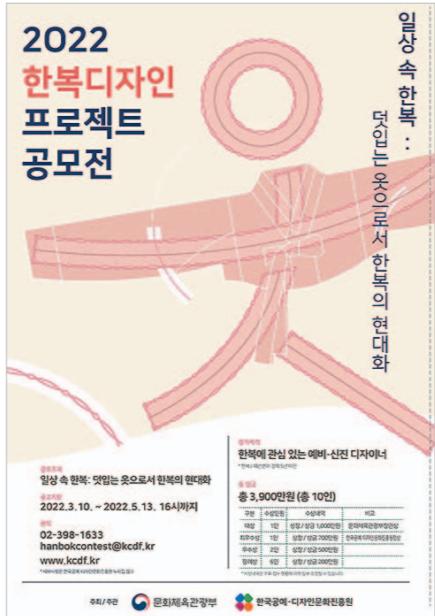
다음으로 포도주를 설명하자면 우선 포도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이다. 또한 이런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기독교의 일종의 상징처럼 생각할 정도로 유명하기도 하다. 이런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마시는 음료였는데 연회를 열거나 손님을 대접할 때면 항상 마시곤 했다. 연회를 허브리어로 표현하면 ‘미쉬테(mishteh)’인데 이는 ‘마신다’라는 뜻을 가진 ‘서티(shasta)’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를 보아 그들이 포도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짐작 할 수 있다. 이런 포도주가 언제부터 등장하였는지 모태를 찾아보자면 살렘의 왕인 펠기세덱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4 : 17~19) 나아가 예수의 기적 중 유명한 일화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예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한복음 2 : 3~10) 그러나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시지 않을 것을 경고하기도 하고 술에 따른 해악이 있었음도 명시한다. (창세기 9 : 20~25) 이런 포도주는 당연히 유월절에 이뤄진 <최후의 만찬>에 역시 등장한다. 이 때 포도주는 예수의 피이자 언약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루카복음 22 : 20)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빵과 포도주는 오늘날 성찬식과 성만찬, 성체 성사 등 다방면으로 널리 사용되고 빵을 자르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를 하며 기념하고 있다.

자료 출처 : 책 - 맛있는 성경이야
- 예수님은 뭘 먹고 살았을까
도연 수습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제8회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다시, 봄!>
- 접수기간 : ~2022. 05. 11(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사진/영상/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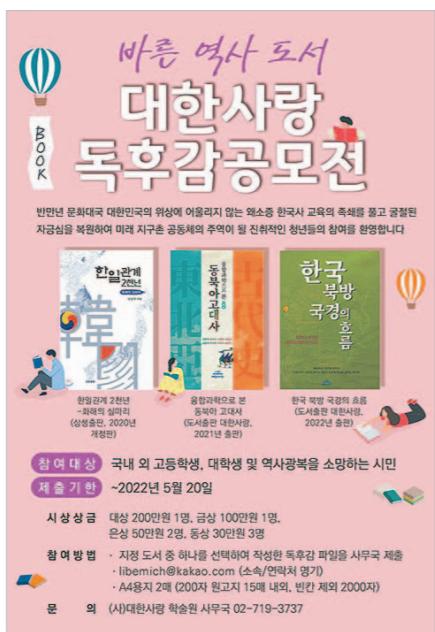
- 2022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13(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웹툰, 예체능/미술/음악, 기타

- 2022 여성폭력 예방 홍보 컨텐츠 교육과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13(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미술, 사진/영상/UCC, 정치/정책/사회

- 제8회 통일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 접수기간 : ~2022. 05. 14(토)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학술

- 2022 부산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가게 찾기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15(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화/영화/문학, 네이밍/슬로건

- 제2회 컴퓨터 영상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15(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사진/영상/UCC



- 2022 부산 마약류 폐해 알림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2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사진/영상/U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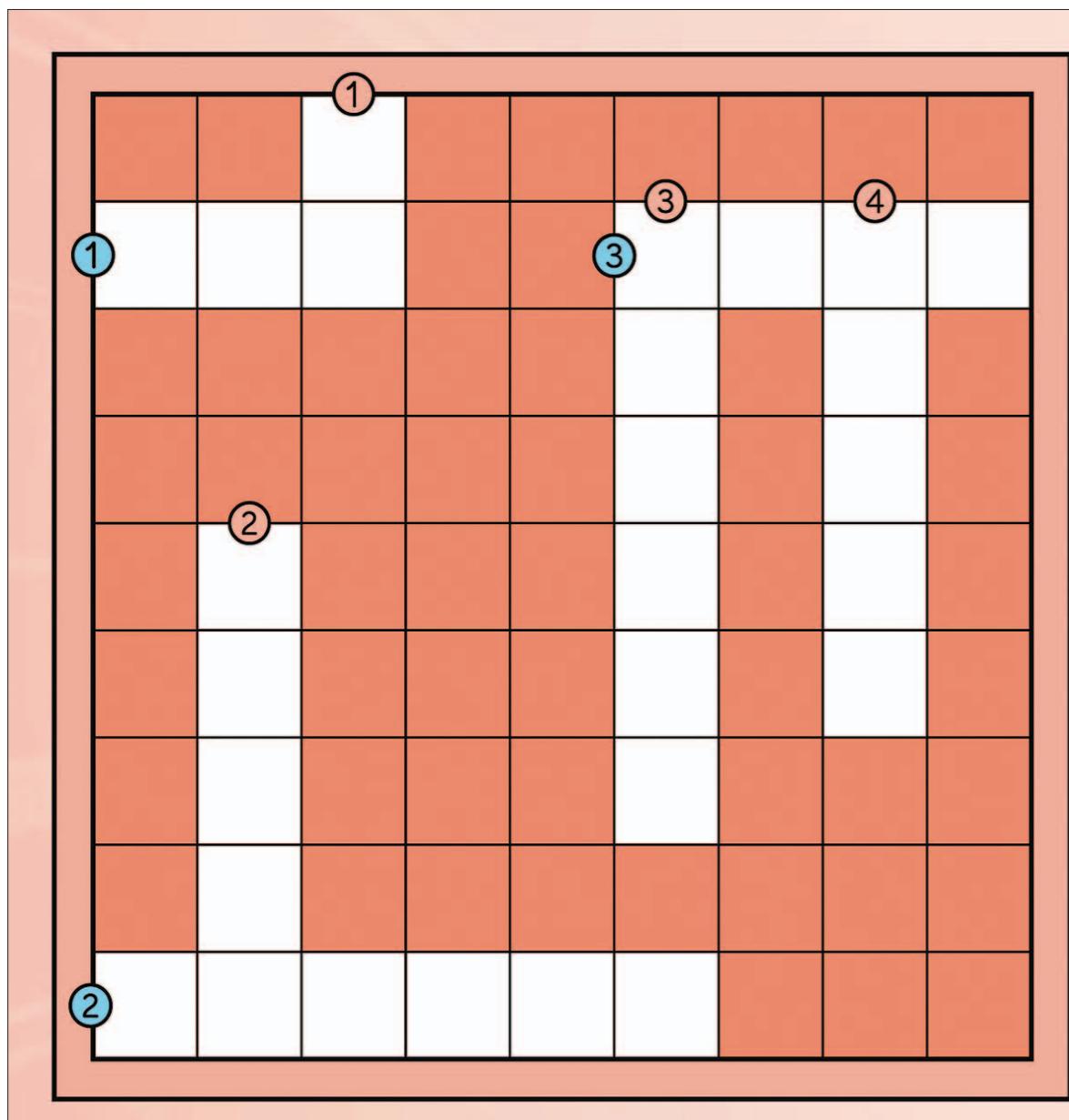
- 바른 역사 도서 대한사랑 독후감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2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화/시나리오

- 제2회 은평문화관광 플랫폼 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2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웹/모바일/IT, 예체능/미술/음악, 대외활동/서포터즈

- 2022 전기 사랑 미디어 콘텐츠 대전
- 접수기간 : ~2022. 05. 27(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콘텐츠/웹툰, 사진/영상/UCC, 환경/에너지

- 제20회 부산 우수 발명인 포상 공고
- 접수기간 : ~2022. 05. 31(화)
- 응모대상 : 제한없음(등본상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 모두 부산)
- 공모분야 : 과학/공학/IT, 아이디어/기획

- 웨크론 창립 30주년 기념 침구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31(화)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DSU NEWSPAPER - 맞춰봐요 낱말퍼즐

가로

- ① 우리 대학의 상징동물이며 수리과에 속하는 대형조류
- ② 2022년, 우리 대학은 '○○ ○○○○'을 맞이했다
- ③ 우리 대학의 교육철학으로,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후의 모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의 영어 약어

세로

- ①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인격의 터전으로 삼는 교육이라는 뜻
- ②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의 이름
- ③ '전에', '~하기 전에'라는 뜻의 영어 단어
- ④ '후에', '~한 후에'라는 뜻의 영어 단어

참여방법

- 낱말퍼즐을 잘라 신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

5월 30일까지 낱말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5월 3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학 과:
* 학 년:
* 이 름:
* 연락처: